

## 언론이나 영화가 대학생들의 안보의식에 미치는 영향연구

– 다큐영화 ‘천안함 프로젝트’ 사례를 중심으로 –

Study on the Influential Effect of Media and Movie  
in the Security Awareness of University Students

– Centered on the Documentary film 'Cheonanham Project' Case –

Cheol Ho Yang\*, Sang Wan Jeong\*\*

Department of Military Studies, Cheongju University, Daeseongro, Sangdang-gu, Cheongju, Korea

Department of Police Administration, Gangdong College, Janghowon-eup Post Office Po Box-1.

Icheon-si, Gyeonggi-do, Korea.

### Abstract

On March 26, 2010, South Korea's warship 'Cheonan' sank in the Yellow Sea by unknown factor and in this tragic incident there were 46 casualties. The government organized a civil and military investigating team to find out the cause of this event and came up with the result that the ship was sunk by a torpedo which was fired by North Korea's small submarine. However, North Korea as well as some groups in South Korea deny that the attacker was North Korea. Thus, in this study, we will analyze the impact of media such as movies like 'Cheonanham project' which influence the security awareness of university students in order to find out the media's desirable roll in security-related incidents. For this study, total of 129 university students were asked to answer 41 questionnaires before and after watching the film. There was a difference in the recognition of Cheonanham incident. After watching the movie, many students changed their opinion from North Korea's torpedo attack to stranding of the ship. These changes of perception are deeply related not only with the roll of movies and medias but also with the negative public confidence in the government statement. Therefore, government

---

\*First author, Tel: +82-43-229-7577, Email. y0300h@hanmail.net

\*\*Corresponding author Tel: +82-43-879-3358, Email. jsangwan@hanmail.net

Submission & Publication Process

Received: May. 7, 2014 / Revised: Jun. 13, 2014 / Accepted: Jun. 23, 2014

statements which are related to the issues of national security should be balanced between the right to know and national security to maintain public trust.

**Key words:** Cheonanham(Warship 'Cheonan'), documentary film, security awareness

### 국문초록

2010년 3월 26일 서해 백령도 해상에서 초계중이던 천안함이 원인미상으로 침몰하여 우리 해군 장병 46명이 전사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였다. 정부에서는 민·군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조사한 결과 북한의 소형 잠수함에서 발사된 어뢰에 피격되어 침몰한 것으로 발표하였다. 그러나 가해세력인 북한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의 일각에서조차 북한에 의한 어뢰 피격을 부정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천안함 프로젝트’와 같은 영화나 언론 등이 대학생들의 안보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여 천안함 피격사건과 유사한 안보관련 사건 발생 시의 영화나 언론의 바람직한 역할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 연구를 위해 총 41개 항목의 설문을 준비하여 대학생 129명을 대상으로 영화 상영 전과 후로 구분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영화가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천안함이 정부에서 발표한 ‘북한의 어뢰에 의한 침몰’이 아니라 영화에서 주장하는 ‘좌초’에 의해 침몰되었다는 의견이 증가하였다. 그 이유는 단순히 영화나 언론의 역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신뢰와도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안보와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는 국민의 알권리와 보안유지라는 측면을 균형되게 고려하여 공보 함으로써 국가안보에 관한 신뢰를 계속 유지토록 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천안함, 다큐영화, 안보의식

## I. 서론

천안함 피격 사건은 2010년 3월 26일 21:22경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경계 작전을 수행하던 해군 2함대 소속의 천안함이 북한 잠수함의 어뢰공격을 받아 침몰함으로써 우리 장병 46명이 전사하고, 58명이 구조된 사건이다.

정부에서는 외국 전문 조사 팀 등 24명이 포함된 민·군 합동조사단을 편성하여 3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92일간 운용하였다. 민·군 합동조사단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정밀 조사를 통하여 침몰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는데 목표를 두고 조사하여 5월 20일 ‘북한의 소형 잠수함에서 발사된 어뢰에 의해 피격되었다.’고 발표하였다.

발표 후 행정안전부는 6·25전쟁 60주년을 맞아 2010년 6월 12일부터 15일까지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청소년(중·고교생) 1,000명을 대상으로 ‘국민안보의식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실시결과 성인 75.4%와 청소년 75.1%가 ‘북한이 천안함을 공격했다’고 응답하였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64%, 30대 75.1%, 40대 69.7%, 50대 이상 85.3%로 나타났으며, 20대 응답률은 13~18세 중·고교생 응답률(75.1%)보다 낮은 수치였다(행정안전부, 2010).

본 연구에서는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해 정부의 발표와 다른 주장을 하는 ‘천안함 프로젝트’라는 다

큐영화를 대학생들에게 관람하게 하고 관람전과 관람후로 구분해 각각의 설문을 작성하여 그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영화나 언론이 대학생들의 안보의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여 안보의식 강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구방법은 문헌조사를 통하여 이론 및 선행연구에 의존하였으며 구조화된 설문지를 작성하여 배포한 후 회수 하는 방법을 통해 수집하였다. 설문대상자는 충북지역에 재학하고 있는 대학생 12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통계분석 프로그램 SPSS를 이용하여 빈도분석,  $\chi^2$ 검증, 상관관계분석 등을 수행하였다.

## II. 이론적 배경

### 1. 국가 안보의 개념

국가안보란 위협이나 위기, 침해와 침략으로부터 자국의 안전을 지킴으로써 국민들이 불안, 근심이 없도록 하는 것이며, 통상 내·외부 위협 및 위협에 대한 국토, 주권, 재산 등 국가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길병욱, 2008). 한편 국가안보라는 용어가 사용된 배경은 제1차 세계대전 직후로 국제연맹 시대의 유럽에서 독일의 보복을 두려워하던 프랑스가 자국을 비롯한 유럽의 평화를 지키기 위하여 유럽의 모든 국가들이 대외적 위협으로부터 어떠한 방법으로 지킬 것인가 하는 위기의식으로부터 발단이 되었다(김희상, 2003).

안보의 개념은 2차 대전 이후에 절대 안보 개념으로 정형화되었고 탈냉전 과정에서 공동안보, 협력 안보 개념으로 발전되었으며, 현대에는 복합적 안보요소의 발전으로 다차원·총체적·체계적 안보개념인 포괄적 안보개념이 정착되고 있다(박광철, 2011).

현대 사회의 국가안보 영역은 군사 위주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자원, 기술과 대형 재난 등 비군사 분야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대되었다. 따라서 현대사회에서의 국가안보는 더 이상 전통적인 군사안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안보와 환경안보, 그리고 인간안보를 포함하는 포괄적 안보로 전환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이재은, 2013).

이와 같은 안보의 개념을 종합해보면, 국가안보는 국가의 제 정책 분야를 종합적으로 운용하여 국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군사적·비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생존을 유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1950년 6. 25 전쟁이후 64년 동안 남북한 간 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북한의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도발이 상존하고 있는 상태이다. 아울러 중국의 군사적 증강 및 일본의 우경화 및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 등 한반도 주변의 안보적 환경도 불안해 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안보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인식하고, 실질적 위협인 북한에 대비하면서, 주변국가와의 갈등에도 대비해야 할 것이다.

## 2. 국가안보와 관련한 언론이나 영화의 역할

언론이란 매스커뮤니케이션의 한 유형으로 신문사, 시사 잡지사, 방송국 통신사 등의 언론기관들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이나 현상들에 대한 보도 논평 등을 기사나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정기적으로 제공해주는 활동을 말한다(네이버 지식인팀, 2004). 이러한 언론은 그 사용 매체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신문이라는 대중매체를 통해 이와 같은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신문언론(newspaper journalism), 방송을 통해 수행하는 것을 방송언론(broadcasting)라고 한다. 이와 같은 언론은 사회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기능, 예를 들어 사회 환경을 감시하고 국민 대중을 계도하고 문화를 전수하고 또한 오락도 제공해 주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네이버 지식인팀, 2004). 그러나 언론이 지나치게 정부 편에서 보도하면 정권의 나팔수가 되고 지나치게 국민 편에서면 국민의 알권리가 충분히 전달될 수 없다. 따라서 정부와 국민사이에서 공정하게 공익을 우선시 하며 보도해야 한다.

영화란 여하의 표현 매체와는 다른 변별성을 가진 매체이다. 일반적으로 필름과 촬영기에 의해 대상을 분석적으로 포착하여 현상, 편집을 통해 영상기에 의해 영사막 상에 종합적으로 재현되는 종합 예술의 산물이다(매스컴 대사전, 1993). 영화를 분류해 보면, 극영화와 현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는 논픽션 영화인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다. 기록영화라고도 하며 다큐멘터리 영화의 종류에는 크게 뉴스영화, 교육영화, 스포츠영화 등이 있다(시사상식 사전, 1993). 최근에 개봉된 다큐멘터리 영화 중에는 천안함 침몰원인을 분석한, '천안함 프로젝트'를 비롯하여 '다큐멘터리 한대수', '에나멜청 스토리', 위안부 피해자의 삶을 영화화한 '낮은 목소리' 등이 있다(네이버, 2004).

이와 같은 언론이나 다큐영화 등의 역할은 단순한 사실 보도에만 있지 않으며, 진실을 보도하고 사건의 본질을 파헤쳐 올바른 여론 형성과 사회계도의 역할을 해야 한다(김성수, 2011: 187-219).

국가안보가 위태롭거나 위기상황에서 언론 및 영화의 역할은 특히 중요하다. 언론은 특정한 사건에 대해 공적의미를 부여하는 강력한 힘을 가진 사회 제도이기 때문이다. 한편 언론은 뉴스거리를 만들기 위해 과장보도를 하거나 사실을 왜곡·편파보도 하는 경우가 있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언론은 외부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명백하고 현존위협일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고 공공의 이익이 아닐 경우에는 법적·도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이슈와 쟁점, 2012).

특히 국가안보와 관련된 언론이나 다큐영화 등 대중에게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 보도를 신중하고 균형 있게 해야 한다.

## 3.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한 '정부발표'와 다큐영화 '천안함 프로젝트'의 차이점 분석

### 1) 정부발표

정부발표는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해 침몰한 것으로 민·군 합동 조사단 조사 후 발표하

였다. 발표 시 민·군합동조사단의 판단 근거(대한민국 국방부, 2010: 204-205)는 일곱 가지로써 첫째 선체 손상부위를 정밀계측하여 분석한 결과, 충격과와 버블효과로 인하여 선체가 함정건조 당시와 비교하여 크게 변형되었고, 외판이 급격하게 꺾이고 선체에는 파괴된 부분이 있다. 특히 함수, 함미의 선저가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꺾인 것은 수중폭발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한다.

둘째, 함정 내·외의 표면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 함안정기<sup>1)</sup>에 나타나는 강력한 압력흔적, 선저부분의 수압 및 버블흔적, 열 흔적이 없는 전선의 절단, 가스터빈실 선체에 나타난 구형 압력 흔적 등은 수중 폭발에 의한 강력한 충격과와 버블효과가 함정의 절단 및 침몰 원인을 알려주고 있다.

셋째, 생존자들은 거의 동시에 폭발음을 1-2회 청취 하였으며, 충격으로 쓰러진 좌현 견시병의 얼굴에 물이 튀었다는 진술과 백령도 해안 초병이 약 100m 높이의 백색 섬광불빛을 관측했다는 진술 등을 분석한 결과 이는 수중폭발로 발생한 물기둥 현상과 일치한다.

넷째,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지진과와 공중음과를 분석한 결과 지진과는 4개소에서 진파 1.5규모로 감지되었으며 공중음과는 4개소에서 1.1초 간격으로 2회 감지되었다. 지진과와 공중음과는 동일 폭발원이었으며, 이것은 수중폭발에 의한 충격과와 버블효과와 일치 하였다.

다섯째, 1차 미국 측의 선체 변형 현상분석 결과 수심 약 6-9m 가스터빈실 중앙으로부터 좌현 3m 위치에서 총 폭약량 TNT 200-300kg 규모의 폭발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었고 2차 한국 측의 시뮬레이션 결과 동일 지점에서 총 폭약량 TNT 250-360kg 규모의 폭발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섯째, 폭약 성분 분석 결과 HMX는 연돌, 함수 절단면 등 28개소에서 검출 되었으며, RDX는 연돌, 해저토양 등 6개소에서 검출 되었고 TNT는 함안정기 등 2개소에서 검출됨으로써 HMX, RDX, TNT가 혼합된 폭약성분임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5월 15일 침몰해역에서 어뢰로 확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물인 어뢰의 추진모터와 조정장치 등을 수거하였다. 이것은 북한이 해외로 수출할 목적으로 배포한 어뢰 소개 지표의 설계도와 크기, 모양 등이 일치하였고 추진후부 안쪽에 "1번"이라는 한글 표기는 2003년 습득한 북한의 시험용 어뢰 표기 방법과 유사하였다. 이상 일곱 가지를 종합하여 북한의 잠수함에서 어뢰를 이용한 공격으로 천안함이 침몰된 것으로 판단하였다(대한민국 정부, 2011).

## 2) 다큐영화 천안함 프로젝트의 주장

다큐영화 천안함 프로젝트에서는 천안함의 침몰원인을 밝히기 위해 등장시킨 핵심인물이 A씨와 B씨 두 사람이다. 이들은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침몰원인을 이야기 하는데 시작은 비슷하였으나 끝이 달랐다. 두 사람 모두 천안함이 육지부에 가까이 갔다가 물속에 있는 바위에 함미 부분이 좌초 됐던 것으로 본다. 그리고 함정의 파위를 올려

1) 초계함의 횡 동요 안정화 장치는 '빌지킬'과 '핀 스테빌라이저(함안정기: Fin Stabilizer)', 러더 스테빌라이저(Rudder Roll Stabilizer) 등이 있다.

빠져나왔다는 것까지는 의견이 일치한다. 그 이후 A씨는 암초를 빠져나온 천안함 옆구리를 제 3국의 잠수함이 90도 가까운 각도로 들어 받으면서 뺨 뚫어 동강내 버렸다고 한다. 그 증거로 그는 인양한 천안함을 맞춰 놓은 것을 보면 터져나간 부분이 있는데 터져나간 부분이 마스트가 달린 잠수함이 뚫고 지나간 것과 비슷하다고 주장한다(이정훈, 2013: 89-90).

B씨는 천안함이 암초에 걸렸다가 빠져나왔으나 암초에 걸렸을 때 시작된 균열로 인해 부러졌다고 주장한다(이정훈, 2013: 89-90). 따라서 북한인지 제 3국인지 모를 잠수함이 쏜 어뢰로 격침되었다는 것은 허위라는 것이다. 즉, 두 사람의 주장은 천안함의 침몰원인이 정부에서 발표한 “북한의 잠수함의 어뢰공격”에 의한 것이 아니라 “좌초”가 원인이라는 것이다.

### 3) 정부 발표와 다큐영화 천안함 프로젝트 차이점 분석

천안함 침몰원인에 대해 정부는 민·군 합동조사단의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사 후에 “북한 잠수함에 대한 어뢰 공격”으로 발표하였다. 천안함 프로젝트의 주장은 “최초 좌초 후 제 3국의 잠수함에 의한 충돌”과 “좌초 후 균열로 인한 부러진 것”이라는 것이다. 정부의 발표근거인 민·군 합동조사단조사에서는 침몰요인을 ①좌초 ②충돌 ③피로파괴 ④어뢰 ⑤기뢰 ⑥탄약고 폭발 ⑦연료탱크 폭발 ⑧엔진결함 등으로 구분한 가운데 국제해사기구의 분석틀을 기준으로 요인별 발생 가능성을 판단하였다.

특히 천안함 프로젝트의 주장인 “좌초”에 대해서도 ①손상지표 ②육안검사 ③환경적 조건 ④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⑤징후 및 경보 ⑥관련인원 증언 등 6가지를 심층 깊게 비교분석하였으며 면밀한 분석 결과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최종결론을 지었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충북지역에 재학하고 있는 대학생 12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언론과 영화가 대학생들의 안보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도록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 관람 전과 후로 나누어 설문을 분석하여 비교하였다. 설문조사 기간은 영화관람 전 2013년 11월 25일에 실시하였고 영화관람 이후 설문조사는 2013년 12월 11일에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총 129명중 성별은 남자 108명(83.7%), 여자 21명(16.3%)으로 나타났으며, 학년은 1학년 49명(38%), 2학년 43명(33.3%), 3학년 37명(28.7%)로 나타났다.

<표 1> 설문문항 구성

구분	설문내용(41)	문항수
천안함 프로젝트 관람전·후 비교	(1) 정부의 안보정책 관련 발표 신뢰도	2
	(2) 2010년 3월에 발생한 천안함 침몰원인과 관련한 정부의 조사결과 발표 신뢰도	2
	(3) 천안함 침몰원인과 관련하여 정부의 조사결과와 다른 의견을 발표한 일부언론의 신뢰도	2
	(4) 천안함 침몰의 원인이 정부의 발표대로 어뢰에 맞아 침몰했다는 의견에 대한 신뢰도	2
	(5) 천안함침몰이 어뢰에 맞아 침몰했다면 어느 나라가 쏜 어뢰라고 생각하는가	2
	(6) 천안함침몰이 어뢰에 맞아 침몰했다면 북한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2
	(7) 왜 북한이 아닌 다른 국가라고 생각하는 이유	2
	(8) 천안함이 어뢰에 맞아 침몰한 것이 아니라면 그 원인	2
	(9) 좌초라고 생각하는 원인	2
	(10) 국가 안보정책이나 군사 분야 관련 언론이나 영화의 내용	2
	(11) 북한에 대한 의견	2
	(12) 미국에 대한 의견	2
	(13) 대학생들의 안보의식 수준	2
	(14) 대학생들의 안보의식 함양을 위한 방안	2
	(15) 자신의 성향에 대한 의견	2
	(16) 자신의 성향에 대한 이유	2
관람후 의견변화	(17) 천안함 프로젝트라는 영화 관람후 생각의 변화	1
	(18) 생각의 변화유형	1
	(19) 천안함 침몰원인에 대한 의견	1
	(20) 천안함 침몰원인에 대해 정부 발표와 다른 주장을 하는 일부언론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신뢰하는 이유	1
	(21) 천안함 프로젝트 영화에서 제시한 침몰원인의 객관성	1
	(22) 천안함 프로젝트 영화의 공정성	1
	(23)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 이유	1
인구통계학적 분류(학년, 성별)		2

## 2. 조사내용

본 연구에서 국가안보와 관련한 대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할 수 있는 내용의 설문을 구성하였다. 즉, 천안함프로젝트 영화관람전과 후 달라진 의견변화를 천안함 침몰원인 관련 정부의 조사결과 발표를 신뢰하는지, 정부에 대한 신뢰, 정부의 발표와 다른 언론의 신뢰, 영화를 관람한 이후에는 어떻게 생각이 변했는지, 영화의 내용이 객관적이고 공정했는지 등 영화에 대한 신뢰성도 포함하였다. 설문문항 구성에 대한 내용은 <표 1>과 같다.

## 3. 선행 연구 분석

언론이나 영화가 대학생들의 안보의식에 미치는 영향연구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우선 천안함 사고와 관련하여 언론의 원인 보도에 문제점으로 지상파 방송 3사가 추정하는 사고의 원인이 일관성을 잃고 추정보도가 많하다는 점을 지적한 논문(도형래, 2010)이 있었으며, 자국의 정치·외교적 이

테올로기가 국가 분쟁에 대한 뉴스 프레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고 한 논문(유세경, 2010)도 있다. 또한 초기 천안함 침몰원인을 북한과 연계하는 과정에서 보수성향 언론과 진보성향 언론간의 매체성향에 따른 보도의 신중을 기하는 차이가 달랐다는 점을 지적하고 군과 정부의 결정적 정보은폐에 의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했을 가능성을 제기한 논문(김영주, 2010), 뉴스의 정보나 정보원이 군, 경, 정부와 같은 특정 집단에 집중되어 정보의 통로상 문제가 그대로 국민의혹으로 증폭될 수 있음을 지적한 논문(임연미, 2010)도 있었다.

수도권 지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보훈의식연구(김예솔 외 2008: 129-148), 청소년 호국의식 함양 방안을 위한 세부 방안연구(유영옥, 2003: 99-129), 보훈 문화혁신을 위한 독립기념관, 국립현충원 활동방안 연구(오일환, 2009), 위협사회와 언론의 안보보도에 관한 연구(김태중, 2011), 군 관련 영화가 안보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김규진, 2004: 189-262) 등이 있으나 다큐영화나 언론이 대학생들의 안보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사례는 없다. 그러나 영화 “타워”와 “반창고”에서 영화에 비취친 소방활동과 실제 소방활동과의 차이를 연구한 논문(김혜선 외, 2013)에서는 대중매체가 시청자로 하여금 많은 정보를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도 하지만 대중매체가 준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재정적 인력투자가 유입되어야 하는 모순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초기의 평가와 교정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런 연구는 매우 드물게 연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대학생들의 안보의식 함양을 위하여 언론이나 영화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제시함으로써 향후 국가 안보 위기 시 바람직한 방향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 4. 연구모형

기존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연구가설과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대가설: 대학생들은 천안함 프로젝트를 관람후 안보의식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가설1 천안함 프로젝트 관람후 정부발표에 대한 신뢰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1-1 대학생들은 정부의 안보정책 관련 발표에 대한 신뢰도 차이가 있을 것이다.

1-2 정부의 천안함 관련한 조사결과 발표에 대한 신뢰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1-3 천안함 침몰원인과 관련하여 정부의 조사결과와 다른 의견을 발표한 일부언론의 신뢰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1-4 천안함 침몰 원인이 어뢰라는 정부발표에 대한 신뢰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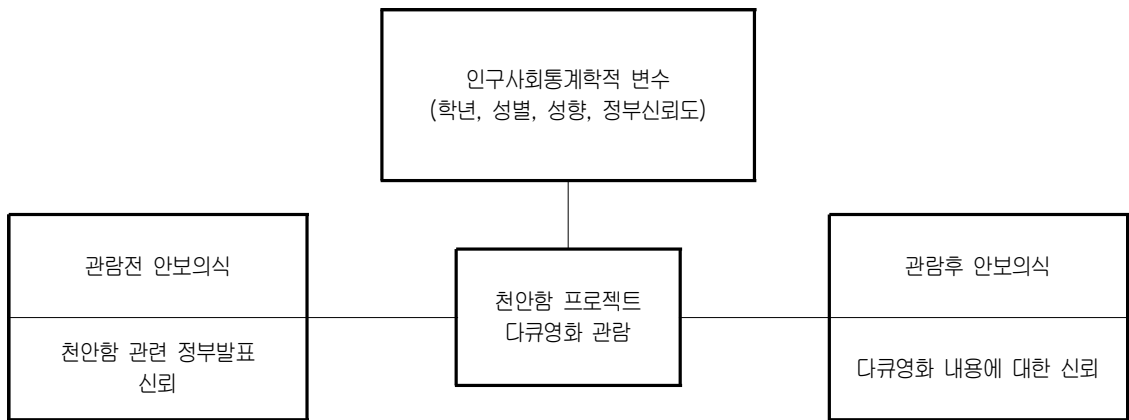
가설2 대학생들의 안보의식에 변화가 있을 것이다.

2-1 천안함 프로젝트 관람후 정부발표와 다른 주장의 일부언론과 전문가들의 의견에 대한 신뢰도가 변화되었을 것이다.

2-2 천안함 침몰이 어뢰에 맞아 침몰한 것이 아니라면 그 원인이 천안함 프로젝트에서 주장하는 의견으로 변화되었을 것이다.

2-3 국가 안보정책이나 군사 분야 관련 언론이나 영화의 내용은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변화되었을 것이다.

2-4 천안함 프로젝트 영화의 내용이 공정하지 않다는 의견으로 변화되었을 것이다.



<그림 1> 연구모형

#### IV. 연구 결과

##### 1. 영화 관람 전·후 안보의식 비교

충북 청주지역 대학생 129명을 대상으로 천안함사건과 관련한 정부발표와 정반대 의견을 제기하고 있는 ‘천안함 프로젝트’ 다큐영화가 대학생들의 안보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천안함 프로젝트 영화 관람전과 관람후의 설문결과를 빈도분석하여 비교하고  $\chi^2$ 검증,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2>은 천안함 프로젝트 영화 관람전과 관람후 설문에 대한 통계적 검증결과이다.

<표 2> 천안함 프로젝트 영화 관람전과 관람후 설문에 대한 통계적 검증결과

(유효케이스 수=253)

구분	Pearson 카이제곱값	자유도	점근 유의확률 (양측검정)
1) 정부의 안보정책 관련 발표 신뢰도	21.988a	5	.001
2) 천안함 침몰원인과 관련한 정부의 신뢰도	31.584a	5	.000
3) 정부의 조사결과와 다른 발표 언론과의 신뢰도	20.537a	5	.001
4) 어뢰에 맞아 침몰했다는 정부의견 신뢰도	47.781a	5	.000
5) 어뢰에 의한 침몰시 어느 나라가 쓴 어뢰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의견	27.894a	4	.000
6) 천안함침몰이 어뢰에 맞아 침몰했다면 북한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28.630a	5	.000
7) 왜 북한이 아닌 다른 국가라고 생각하는가?	3.365a	4	.499
8) 천안함이 어뢰에 맞아 침몰한 것이 아니라면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28.311a	6	.000
9) 좌초라고 생각하는 원인	21.996a	5	.001
10) 국가 안보정책이나 군사 분야 관련 언론이나 영화의 내용은 어때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19.411a	5	.002
11) 북한에 대한 의견	8.829a	3	.032
12) 미국에 대한 의견	13.739a	4	.008
13) 대학생들의 안보의식 수준	33.674a	4	.028
14) 대학생들의 안보의식 향상을 위한 방안	14.241a	5	.014
15) 자신의 성향에 대한 의견	9.363a	4	.053
16) 자신의 성향에 대한 이유	5.469a	4	.242

※ 점근유의확률 0.05이하에서 차이가 유의합니다.

1) 정부의 안보정책 관련 발표 신뢰도

천안함 프로젝트 영화 관람전 설문에서 우선 정부의 안보정책관련 발표를 신뢰하는가를 측정한 결과 신뢰하는 편이다가 75명(58.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반신반의 한다가 34명(26.4%), 전적으로 신뢰한다가 19명(14.7%), 신뢰하지 않는다가 1명(0.8%)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천안함 프로젝트 영화 관람후 설문결과에서는 반신반의 한다가 46명(38.3%), 신뢰하는 편이다가 43명(35.8%), 전적으로 신뢰한다가 21명(17.5%), 신뢰하지 않는다가 7명(5.8%),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가 3명(2.5%) 순으로 나타났다. 즉, 영화관람후 정부의 안보정책 관련 발표에 대한 신뢰도가 일부 신뢰하는 편에서 반신반의로 변화되었다. 이를 통계적으로 검정하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2010년 3월에 발생한 천안함 침몰원인과 관련한 정부의 조사결과 발표 신뢰도

영화관람전 설문에서는 신뢰하는 편이다가 65명(50.4%)로 가장 높았고 전적으로 신뢰한다가 33명

(25.6%), 반신반의 한다가 28명(21.7%), 신뢰하지 않는다가 3명(2.3%)순으로 나타났으나 영화관람후 설문에서는 반신반의 한다가 54명(45.0%), 전적으로 신뢰한다가 32명(26.7%), 전적으로 신뢰한다가 22명(18.3%), 신뢰하지 않는다가 9명(7.5%),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가 3명(2.5%)순으로 나타났다. 즉, 영화관람후 2010년 3월에 발생한 천안함 침몰원인과 관련한 정부의 조사결과 발표가 신뢰하는 편에서 반신반의하는 편으로 변화되었다. 이를 통계적으로 검정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천안함 침몰원인과 관련하여 정부의 조사결과와 다른 의견을 발표한 일부언론의 신뢰도

영화관람전 설문에서는 반신반의한다가 50명(38.8%)으로 가장 높았고 신뢰하지 않는다가 36명(27.9%),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가 19명(14.7%), 신뢰하는 편이다가 18명(14.0%), 전적으로 신뢰한다가 6명(4.7%)순으로 나타났으나 영화관람후 설문에서는 반신반의 한다가 75명(62.5%), 신뢰하지 않는다 16명(13.3%), 신뢰하는 편이다 15명(12.5%),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9명(7.5%), 전적으로 신뢰한다 5명(4.2%)순으로 나타났다. 즉, 영화관람후 천안함 침몰원인과 관련하여 정부의 조사결과와 다른 의견을 발표한 일부언론에 대해 반신반의 한다가 유의한 차이로 응답이 늘어났고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는 유의한 차이로 줄었다.

### 4) 천안함 침몰의 원인이 정부의 발표대로 어뢰에 맞아 침몰했다는 의견에 대한 신뢰도

영화관람전 설문에서는 믿는 편이다가 59명(45.7%)이 가장 높았고, 전적으로 믿는다가 54명(41.9%), 반신반의한다 15명(11.6%), 믿지 않는다 1명(0.8%)순으로 나타났으나 영화관람후 설문에서는 반신반의 한다가 46명(38.3%), 믿는 편이다 35명(29.2%), 전적으로 믿는다 25명(20.8%), 믿지 않는다 11명(9.2%), 전혀 믿지 않는다 3명(2.5%)순으로 나타났다. 즉, 영화관람후 천안함 침몰의 원인이 정부의 발표대로 어뢰에 맞아 침몰했다는 의견에 대해 믿는 편에서 반신반의로 변화되었다. 이를 통계적으로 검정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5) 천안함침몰이 어뢰에 맞아 침몰했다면 어느 나라가 쏜 어뢰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의견

영화관람전 설문에서는 북한이 128명(99.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미국 1명(0.8%)순으로 나타났으며 영화관람후 설문에서는 북한 98명(93.3%), 미국3명(2.9%), 기타 3명(2.9%), 일본 1명(1.0%)순으로 나타났다. 즉, 영화관람후 어뢰에 맞아 침몰했다면 어느 나라가 쏜 어뢰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의견은 북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계적으로 검정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6) 천안함침몰이 어뢰에 맞아 침몰했다면 북한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영화관람전 설문에서는 6.25전쟁이후 끊임없이 자행해온 북한의 도발 때문이라는 응답이 70명(54.3%)으로 가장 높았고, 정부의 조사결과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28명(21.7%), 정부의 조사결과 발표를 신뢰해서가 24명(18.6%), 정부의 발표와 다른 일부언론을 신뢰할 수 없어서가 2명(1.6%), 정부의 발표와 다른 일부언론을 신뢰해서가 2명(1.6%)순으로 나타났으나 영화관람후 설문에서는 6.25 전쟁이후 끊임없이 자행해온 북한의 도발 때문이 54명(51.4%), 정부조사결과 발표를 신뢰해서가 20명(19.0%), 정부의 조사결과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16명(15.2%), 정부의 발표와 다른 일부언론을 신뢰해서가 8명(7.6%), 정부의 발표와 다른 일부언론을 신뢰할 수 없어서가 7명(6.7%)순으로 나타났다. 즉, 영화관람후 천안함침몰이 어뢰에 맞아 침몰했다면 북한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6.25전쟁이후 끊임없이 자행해온 북한의 도발 때문이라는 의견이 줄고 정부의 발표와 다른 일부언론을 신뢰해서와 정부의 발표와 다른 일부언론을 신뢰할 수 없어서라는 의견이 늘었다. 이를 통계적으로 검정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7) 왜 북한이 아닌 다른 국가라고 생각하는가?

영화관람전 설문에서는 무응답이 118명(91.5%), 잘 모르겠음 10명(7.8%), 기타 1명(0.8%)순으로 나타났고 영화관람후 설문에서는 무응답 110명(88.7%), 잘 모르겠음 12명(9.7%), 일본이 싫어서 1명, 기타국가가 싫어서 1명(0.8%)순으로 나타났다. 즉, 영화관람후 왜 북한이 아닌 다른 국가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의견에 무응답이나 잘 모르겠다는 의견은 변함이 없었다. 이를 통계적으로 검정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8) 천안함이 어뢰에 맞아 침몰한 것이 아니라면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영화관람전 설문에서는 기타 13명(28.3%), 내부폭발 11명(23.9%), 좌초 10명(21.7%), 좌초후 잠수함의 2차충돌 7명(15.2%), 충돌 5명(10.9%)순으로 나타났으나 영화관람후 설문에서는 무응답 73명(46.8%), 좌초후 잠수함의 2차충돌 29명(23.4%), 좌초21명(16.9%), 충돌6명, 기타6명(4.8%)순으로 나타났다. 즉, 영화관람후 좌초나 좌초후 잠수함의 2차충돌의 의견이 늘었다. 이를 통계적으로 검정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9) 좌초라고 생각하는 원인

영화관람전 설문에서는 정부발표와 다른 일부언론과 소수 전문가들의 조사가 과학적, 객관적이어서가 12명(57.1%)으로 가장 높았고, 정부발표와 다른 일부언론이나 소수 전문가들을 신뢰해서 4명

(19.0%), 천안함 침몰 원인 관련 정부의 발표를 신뢰 할 수 없어서 3명(14.3%), 정부의 안보정책 발표를 불신해서 1명, 이명박 정부가 싫어서 1명(4.8%)순으로 나타났으나 영화관람 후 설문에서는 무응답 73명(46.8%), 정부 발표와 다른 일부언론과 소수 전문가들의 조사가 과학적·객관적이어서 36명(29.3%), 정부 발표와 다른 일부언론이나 소수 전문가들을 신뢰해서 6명(4.9%), 천안함 침몰 원인 관련 정부의 발표를 신뢰 할 수 없어서 5명(4.1%), 정부의 안보정책 발표를 불신해서 3명(2.4%)순으로 나타났다. 즉, 영화관람후 무응답에서 정부발표에 부정적인 답변이 전부 늘었다. 이를 통계적으로 검정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10) 국가 안보정책이나 군사 분야 관련 언론이나 영화의 내용은 어때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영화관람전 설문에서는 정부의 발표와 다른 의견도 함께 보도해야 한다고 60명(47.2%)으로 가장 높았고, 정부발표 위주로 보도해야 한다 39명(30.7%), 정부의 발표를 전적으로 보도해야 한다 21명(16.5%), 잘 모르겠음 7명(5.5%)순으로 나타났으나 영화관람후 설문에서는 정부의 발표와 다른 의견도 함께 보도해야 한다 73명(65.2%), 정부 발표 위주로 보도해야 한다 19명(17.0%), 정부의 발표를 전적으로 보도해야 한다 11명(9.8%), 잘 모르겠음 8명(1.1%), 다른 의견만 보도해야한다 1명(0.9%) 즉, 영화관람후 정부발표 위주로 보도해야 한다는 의견보다는 정부의 발표와 다른 의견도 함께 보도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변화되었다. 이를 통계적으로 검정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11) 북한에 대한 의견

영화관람전 설문에서는 주적이다 115명(89.8%), 위협대상이다 11명(8.6%), 잘 모르겠다 2명(1.6%)순으로 나타났으나 영화관람후 설문에서는 주적이다 106명(91.4%), 위협대상이다 8명(6.5%), 잘 모르겠다 2명(1.7%)순으로 나타났다. 즉, 영화관람후 북한은 주적이다라는 의견과 위협대상이다라는 의견이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계적으로 검정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12) 미국에 대한 의견

영화관람전 설문에서는 우리와 가까운 동맹이다가 99명(78.0%),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될 나라이다 23명(18.1%), 잘 모르겠다 4명(3.1%), 위협대상이다 1명(0.8%)순으로 나타났으나 영화관람후 설문에서는 우리와 가까운 동맹이다 88명(78.6%),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할 나라다가 16명(14.3%), 잘 모르겠다 7명(6.3%), 위협대상이다 1명(0.9%)순으로 나타났다. 즉, 영화관람후 우리와 가까운 동맹이라는 생각과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할 나라다가 줄고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늘었다. 이를 통계적으로 검정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13) 대학생들의 안보의식 수준

영화관람전 설문에서는 낮다가 75명(58.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보통이다 30명(23.3%), 매우 낮다 21명(16.3%), 높은 편이다 3명(2.3%)순으로 나타났으나 영화관람후 설문에서는 낮다 67명(57.8%), 매우 낮다 25명(21.6%), 보통이다 18명(15.5%), 높은 편이다 6명(5.2%)순으로 나타났다. 즉, 영화관람후 대학생들의 안보의식은 낮다라는 의견이 줄고 매우낮다와 높은 편이다가 늘어났다. 이를 통계적으로 검정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14) 대학생들의 안보의식 함양을 위한 방안

영화관람전 설문에서는 대학 내 안보관련 교육강화가 49명(39.8%)으로 가장 높았고, 안보와 관련된 영상물 관람 44명(35.8%), 안보현장 견학강화 19명(15.4%), 안보와 관련된 초청강의 8명(6.5%), 안보관련 토론 및 세미나 개최 3명(2.4%)순으로 나타났으나 영화관람후 설문에서는 대학 내 안보관련 교육강화 42명(38.5%), 안보와 관련된 영상물 관람 37명(33.9%), 안보현장 견학강화 21명(19.2%), 안보관련 토론 및 세미나 개최 5명(4.6%), 안보와 관련된 초청강의 4명(3.7%)순으로 나타났다. 즉, 영화관람후 대학생들의 안보의식 함양을 위한 방안으로 안보교육강화와 초청강의가 줄고 안보현장 견학이 늘었다. 이를 통계적으로 검정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15) 자신의 성향에 대한 의견

영화관람전 설문에서는 중립이 73명(56.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보수 47명(36.4%), 진보 6명(4.7%), 극보수 3명(2.3%)순으로 나타났으나 영화관람후 설문에서는 중립 68명(58.6%), 보수 42명(36.2%), 진보3명, 극보수3명(2.6%)순으로 나타났다. 즉, 영화관람후 자신의 성향은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의견은 변화가 없었다. 이를 통계적으로 검정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16) 자신의 성향에 대한 이유

영화관람전 설문에서는 국가안보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서가 82명(67.8%)으로 가장 높았고, 북한의 도발에 대해 단호히 생각해서 26명(21.5%), 미국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11명(9.1%), 북한을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해서 2명(1.7%)순으로 나타났으나 영화관람후 설문에서는 국가안보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서 79명(72.5%), 북한의 도발에 대해 단호히 생각해서 22명(20.2%), 미국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7명(6.4%), 북한을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해서 1명(0.9%)순으로 나타났다. 즉, 자신의 성향에 대해선 관람전과 후가 다르지 않았다. 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17) 천안함 프로젝트라는 영화를 보고 생각이 변했는가?

영화관람후 반신반의한다가 41명(34.5%)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조금 변했다 35명(29.4%), 변하지 않았다 19명(16.0%), 전혀 변하지 않았다 18명(15.1%), 완전히 변했다 6명(5.0%)순으로 나타났다.

### 18) 어떤 생각이 변했는가?

영화관람후 정부의 조사결과 발표에 대해 신뢰가 변했다 39명(31.5%)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정부의 안보정책에 대한 신뢰가 조금 변했다 30명(24.2%), 전혀 변하지 않았다 19명(15.3%), 정부의 발표와 다른 일부언론을 전적으로 조금 신뢰하게 되었다 9명(18.5%), 정부의 안보정책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변했다 4명(3.2%)순으로 나타났다.

### 19) 천안함 침몰원인에 대해 생각이 변했는가?

영화관람후 반신반의한다가 40명(34.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변하지 않았다 30명(25.6%), 조금 변했다 25명(21.4%), 전혀 변하지 않았다 17명(14.5%), 완전히 변했다 5명(4.3%)순으로 나타났다.

### 20) 천안함 침몰원인에 대해 정부 발표와 다른 주장을 하는 일부언론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신뢰하는 이유

영화관람전 설문에서는 정부주장과 다른 일부언론과 전문가들의 발표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이어서가 44명(35.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무응답 37명(30.1%), 잘 모르겠음 21명(17.1%), 천안함 침몰원인 조사결과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이지 않아서 15명(12.2%), 정부 주장과 다른 일부언론과 전문가들을 신뢰해서 4명(3.3%), 정부의 안보정책 발표를 믿을 수 없어서 2명(1.6%)순으로 나타났다.

### 21) 천안함 프로젝트 영화에서 제시한 침몰원인이 객관적이라고 생각하는가?

영화관람후 설문에서는 반반이다가 54명(45.4%)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런 편이다 29명(24.4%), 전혀 아니다 19명(16.0%), 아닌 편이다 14명(11.8%), 전적으로 그렇다 3명(2.5%)순으로 나타났다.

## 22) 천안함 프로젝트 영화의 내용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는가?

영화관람전 설문에서는 반반이다가 50명(42.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아닌 편이다 26명(21.8%), 그런 편이다 23명(19.3%), 전혀 아니다 19명(16.0%), 전적으로 그렇다 1명(0.8%)순으로 나타났다.

## 23)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 이유

영화관람후 소수인원이 출연하여 자기들의 의견만 일방적으로 주장해서가 58명(46.8%)으로 가장 높았고, 무응답 39명(31.5%), 잘 모르겠음 13명(10.5%), 정부의 발표와 다른 주장을 해서 6명(4.8%), 등장인물이 편향되어서 4명(3.2%), 정부의 발표를 포함하지 않아서 4명(3.2%)순으로 나타났다.

## 24) 상관관계

영화관람전 설문에서는 학년이 높을수록, 보수성향이 강할수록 남성이 여성보다 정부의 안보정책과 천안함 침몰관련 정부발표를 신뢰하고 있었으며 고학년일수록 안보관련 정부발표를 전적으로 보도해야 한다고 보고 있었다. 또한 정부 안보정책에 신뢰하는 학생들이 천안함관련 정부발표와 주적개념이 높았다.

영화관람후 설문에서는 관람전과 유사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여성이 어뢰에 의한 천안함침몰을 더 믿는편으로 약한상관관계가 발견되었으며, 저학년일수록 정부발표와 다른 의견을 발표한 일부언론을 더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신을 진보라고 선택한 학생들은 국가 안보정책이나 군사 분야 관련 언론이나 영화의 내용이 정부 발표 위주로 보도되지 않고 정부의 발표와 다른 의견도 함께 보도해야 한다고 보았고, 북한을 주적이라고 보는 개념도 약화되었으며, 미국에 대한 부정적 의식도 강화되었다.

## 2. 분석결과에 대한 시사점

천안함 프로젝트 영화 관람 후 의견이 변화된 것을 보면 우선 정부의 안보정책관련 발표를 신뢰하는가를 측정한 결과 일부 신뢰하는 편에서 반신반의로 변화되었고 영화관람후 천안함 침몰원인과 관련한 정부의 조사결과 발표가 신뢰하는 편에서 반신반의하는 편으로 변화되었다. 천안함 침몰원인과 관련하여 정부의 조사결과와 다른 의견을 발표한 일부언론에 대해 반신반의 한다가 늘어났고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는 줄었다.

영화 관람 후 천안함 침몰의 원인이 정부의 발표대로 어뢰에 맞아 침몰했다는 의견에 대해 믿는 편

에서 반신반의로 변화되었다. 천안함침몰이 어뢰에 맞아 침몰했다면 북한이라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6.25전쟁이후 끊임없이 자행해온 북한의 도발 때문이라는 응답이 영화관람전 설문에서 가장 높았으나 영화관람후 의견이 줄고 정부의 발표와 다른 일부언론을 신뢰해서와 정부의 발표와 다른 일부언론을 신뢰 할 수 없어서라는 의견이 늘었다.

천안함이 어뢰에 맞아 침몰한 것이 아니라면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설문에서는 영화관람후 좌초나 좌초후 잠수함의 2차충돌의 의견이 늘었다. 왜 자초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설문에서는 무응답이 많았으나 관람후 정부발표에 부정적인 답변이 늘었다.

국가 안보정책이나 군사 분야 관련 언론이나 영화의 내용은 어때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설문에서는 정부발표 위주로 보도해야 한다는 의견보다는 정부의 발표와 다른 의견도 함께 보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늘었다.

북한에 대해 영화관람후 북한은 주적이다라는 의견과 위협대상이다라는 의견이 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 대한 의견 영화관람후 우리와 가까운 동맹이라는 생각과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할 나라가 줄고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이 늘었다.

대학생들의 안보의식 수준은 영화관람후 대학생들의 안보의식은 낮다는 줄고 매우 낮다와 높은 편이다가 늘어났다. 대학생들의 안보의식 함양을 위한 방안으로는 영화관람후 대학생들의 안보의식 함양을 위한 방안으로 안보교육강화와 초창강의가 줄고 안보현장 견학의견이 늘었다.

천안함 프로젝트 영화에서 제시한 침몰원인이 객관적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설문에 반반이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천안함 프로젝트 영화의 내용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설문에 반반이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영화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 이유에 대해 소수인원이 출연하여 자기들의 의견만 일방적으로 주장해서가 가장 높았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천안함 프로젝트의 다큐영화를 관람 후에 자신이 그동안 인지하고 있고 신뢰하고 있던 정부발표에 반신반의하게 되고 문제제기에 대한 정부설명이 부족한 상황에서 의구심을 갖게 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 이유도 본인 스스로 천안함 프로젝트라는 영화를 보고 생각이 변했는가에 대한 응답에 반신반의한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이 변했는가라는 설문에서 정부의 조사결과 발표에 대해 신뢰가 변했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침몰원인에 대해 생각이 변했는가에 대해 영화관람후 반신반의한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천안함 침몰원인에 대해 정부 발표와 다른 주장을 하는 일부언론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신뢰하는 이유도 설문결과, 정부주장과 다른 일부언론과 전문가들의 발표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이어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천안함침몰이 어뢰에 맞아 침몰했다면 어느 나라가 쏜 어뢰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의견에서는 북한이 차이 없이 높게 나타났고 왜 북한이 아닌 다른 국가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설문에서도 무응답이나 잘 모르겠다는 의견에는 변함이 없었다. 자신의 성향에 대해서도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자신의 성향에 대한 이유도 차이가 없었으며 학년이나 성별에 따른 차이도 없었다.

## V. 결론

천안함 피격사건이 발생한 후 정부는 민·군 합동 조사단을 구성하여 침몰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 활동에 착수하였다. 조사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내 12개 기관의 전문가 25명과 군 전문가 22명, 국회 추천위원 3명 미국·호주·영국·스웨덴 등 4개국 전문가 24명의 조사단을 편성하여 과학수사, 함정구조 및 관리, 폭발유형분석, 정보 분석 등 4개 분과로 나누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를 진행하였다(대한민국 국방부, 2010: 26). 민·군 합동 조사단은 선체인양을 기준으로 단계별로 조사를 실시하여 5월 20일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발표후의 여론 조사를 살펴보면 성인의 75.4%가 청소년의 75.1%가 북한이 천안함을 공격했다고 믿는다는 답을 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발표를 불신하는 국민도 25% 가까이 되었다. 그 이후 조사한 여론조사는 정부의 발표에 대한 신뢰가 더욱 낮아졌다. 해군 장병 46명이 평시에 북한의 공격에 의해 전사한 충격적인 사건임에도 ‘천안함 프로젝트’ 등과 같은 다큐영화와 언론의 균형되지 못한 보도가 신뢰추락의 원인 일 수도 있다는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왔었다.

그런데 ‘천안함 프로젝트’를 관람한 후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를 보면 대학생들의 인식 변화에 많은 영향을 주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정부발표에 대한 신뢰가 낮아졌고,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 공격에 대해 침몰되었다는 의견도 변화되었다. 대학생들이 천안함 프로젝트를 관람후 안보의식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천안함 프로젝트 관람후 정부발표에 대한 신뢰도에 차이가 있었고, 대학생들의 안보의식에도 변화가 있었다. 천안함 프로젝트 관람후 정부발표와 다른 주장의 일부언론과 전문가들의 의견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으며 천안함 침몰이 어뢰에 맞아 침몰한 것이 아니라면 그 원인이 천안함 프로젝트에서 주장하는 의견으로 변화되었다. 국가 안보정책이나 군사 분야 관련 언론이나 영화의 내용은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변화되었다. 영화나 언론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따라서 국가 안보차원의 위기와 관련하여서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국가안보차원의 위기 발생시는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여 혼란과 마비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평소부터 국가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해야 한다. 특히, 안보정책은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므로 더욱 그러해야 한다. 또한, 위기발생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밀유출에 대비한 보안이 유지되도록 균형을 고려한 발표를 하되, 부실하고 부정직한 발표로 인해 사건의 본질이 흐려지는 경우가 발생치 않도록 참 언론의 역할을 다 하여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21세기북스. 시사상식 사전. 1993. 서울: 21세기북스.
- 길병욱. 2008. 국가안보론. 충남: 충남대학교출판문화원.
- 김규진. 2004. 군관련 영화가 안보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국방대학교 안보과정우수논문집. 제10집: 189-262.
- 김성수. 2011. 한국사회의 갈등과 언론의 역할: 한미 FTA 보도 기사를 중심으로. 동서연구. 23(1): 187-219.
- 김영주. 2010. 남북갈등과 미디어. 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논문집.
- 김예슬 외. 2008. 대학생의 보훈의식 향상에 관한 실증연구. 안양대학교 서해안지역발전연구소, 서해안 지역 발전연구. 5: 129-148.
- 김태중. 2011. 위험사회와 언론의 안보보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희상. 2003. 21세기 한국안보. 서울: 하경근문고.
- 네이버 지식인. 2004. 책으로 간 지식 iN: 2004 네이버 지식 iN "best of best". 서울: 김영사.
- 대한민국 국방부. 2010. 천안함피격사건 합동조사결과보고서. 서울: 명진출판.
- 대한민국 정부. 2011. 천안함 피격사건 백서. 서울:인쇄의 창.
- 도형래. 2010. 서해 천안함 침몰사고에 대한 방송3사의 보도분석. 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 박광철. 2011. 통일한국의 군사전략과 적정 군사력 분석.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오일환. 2009. 보훈 문화혁신을 위한 독립기념관·국립현충원 활동방안 연구. 서울: 보훈교육연구원.
- 유세경, 정지인, 이석. 2010. 미국과 중국 일간지의 '천안함 침몰사건'뉴스보도 비교분석. 미디어 젠더 & 문화.
- 유영욱. 2003. 남남이념갈등 극복을 위한 연구. 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8(2): 99-129.
- 이재은. 2013. 위기관리학. 서울: 대영문화사.
- 이정훈. 2013. Mil\_노트. 국방저널.
- 임연미. 2010. 천안함 사건 보도에 대한 뉴스 프레임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한국언론연구원 편, 매스컴대사전. 1993. 서울: 한국언론연구원.
- 행정안전부. 2010. 국민안보의식 여론조사. 2010. 6. 23일자 보도자료.
- KBS. 이슈와 쟁점. 2012. 서울: KBS방송문화연구소.

---

**양철호:** 현재 청주대학교 군사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며 합참작전처장, 제3공수특전여단장을 역임하였다. 관심분야로는 국가안보, 국가위기, 군사학, 리더십, 지휘통솔, 동북아정세, 북한문제, 유엔 PKO, 군복지상당 등이다. 주요 논문으로는 “해외재난 위기시 구호지원활동의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군 아이티 재건지원단 파병사례를 중심으로(2013)” 등이 있다(y0300h@hanmail.net).

**정상완:** 청주대학교에서 행정학박사(논문: 경찰공무원의 역할갈등과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 2004)를 취득하고 현재 강동대학교 경찰행정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관심분야는 경찰행정 및 위기관리분야이다 (jsangwan@hanmail.net).